



중국의 수산업 및 관련정책 동향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차 례

1. 중국검찰 불법조업 시정의무 불이행 행정청에 공익소송제기, 불법조업 고발
2. 하계 휴업기 설정을 통한 어업자원 보호정책
3. 농업농촌부, 어업관련 3무 선박 및 불법조업 전면조사
4. 불법조업 포상제도 시범시행정책
5. 유럽어업인연합, 중국산 다랑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요구
6. 중국 어선단 오징어 대량조업으로 중·미 대사관 신경전 격화
7. 광동성 활어수출 지원정책 추진
8. 원양업계 대기업 핑탄해양, 인도양 조업 시작
9. 핑탄해양 228억 상당 아르헨티나 오징어 어획
10. 중국 국산연어 수출, 상하이 세관 출항 도움
11. 스마트 관리기술을 활용한 신장 양식연어
12. 2019년 분석: 중국 해수 담수화 신규사업 총 17개 진행

□ 불법조업 시정의무 불이행 행정청에 공익소송제기 【별첨1】 참조

- 중국 하이난성 검찰은 남중국해 조업휴업기 감독순찰 중 연근해에서 대량의 정치망을 발견하였음
- 검찰은 농업농촌부에게 관할지역 내 정치망 설치에 대해 조사하여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불법 어획이나 조업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 할 것을 요청하였음
- 그러나 검찰은 그 이후에도 정치망이 발견되고 불법조업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발견, 행정기관이 법정상의 행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원창시 농업농촌국을 고발함
- 검찰측은 “행정청이 해당 수역에 조업금지, 그물설치 금지라는 표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러한 소극적인 조치는 효과가 없으며 이 또한 정치망을 설치한 자가 스스로 철거하였다며 행정청이 국가 생태환경에 대해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고 언급
- 이에 대해 행정청은 “인력이 부족하고 행정청이 감독해야하는 해역 면적이 광범위한 상황에서도 불법조업을 한 행위에 대해 경제적인 처벌 및 교육, 정치망 수거 등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 고 밝힘
- 이어 “검찰측이 환경감독시 발견한 정치망을 사용해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한 어선에 대해서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3만 위안(한화 약 513만원)의 벌금을 내렸다” 고 언급
-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행정청의 조치는 휴업기에 불법 어구로

지정된 정치망을 사용해 해상에서 조업한 행위의 위법성과 비교했을 때 행정청이 취한 제재의 강도가 낮아 결과적으로 불법조업 행위근절 효과가 현저히 미약했다” 고 언급

- 하이코우 해사법원은 해양행정 공익소송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가 관할구역 내 정치망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6개월 내에 법정 책임을 이행할 것을 명령함

□ 사례2: 창강유역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 창강유역에서 불법조업혐의로 체포된 피고인 4명은 각각 징역 6개월 ~ 7개월을 판결을 받음
- 2020년은 창강유역 중점수역 조업금지의 해이나 인근 수역에서 불법어획의 행위가 증가하였고 지금까지 해당 현(한국의 읍보다는 큰 작은 도시 단위)에서 검찰이 불법조업으로 조사중인 사건은 7건이며 체포된 수는 16명임

【별첨1】 공익소송 방송화면



사례1 검찰이 환경순찰을 하는 모습



사례1 소송에 참여하는 검찰의 모습



사례1 피고(행정청)이 변론하는 모습



사례2 피고인들이 재판받는 모습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검찰원 및 중앙방송(10.04)¹⁾

1)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680246343067837442&wfr=spider&for=pc>

<https://baijiahao.baidu.com/s?id=1679595035252998701&wfr=spider&for=pc>

<https://baijiahao.baidu.com/s?id=1679441539905687860&wfr=spider&for=pc>

□ 중국 해경과 농업농촌부의 부서간 협력  【붙임1】 참조

-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어민들이 경제적 손해를 보충하기 위해 불법으로 조업하는 현상이 다른 해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함
- 중국 해경국과 농업농촌부, 각 지방정부는 4개월 동안 협력하여 ‘양검2020’이라는 해양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법 집행 사업을 진행
- 양검 2020은 중국의 4대 해역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보하이에서 각각 기간을 정해 시행하는 일종의 감독 제도로 매년 실시
- 자망(刺网), 낚시, 통발을 제외한 유형의 조업은 휴어기간 조업금지
- 제도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12290척의 함정, 4307척의 감독선박이 동원되었고 규정위반 어선 1493척, 해당어선들에 대한 행정처벌 누적금액 1870만 위안(한국돈 약 32억)
- 압류 어획물 429만kg, 어구 압류 2100여건, 어업관련 형사 사건 213건, 강제 형사조치에 처해진 인원 637명
- 외국 국적선박의 조업을 신고받고 출동한 횡수는 1138회이며 그 중 73회의 선상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검거된 외국 국적 어선은 11척, 체포된 인원은 66명임

※출처: 인민망(09.28)²⁾

2)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679073898864460686&wfr=spider&for=pc>

<https://baike.baidu.com/item/%E4%BC%8F%E5%AD%A3%E4%BC%91%E6%B8%94/5705630?fr=aladdin>

□ **【붙임1】 농업농촌부 불법조업 근절과 관리강화를 위해 조사 및 정책시행**

- 중국 농업농촌부는 ‘중국 어업정책 양검’ 시리즈 조치를 매년 시행해 왔음
- 농업농촌부는 어업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법규를 위반한 어업 활동은 엄격하게 처리하기 위해 각 성 농업농촌국에 관련 내용을 어민들에게 통지하고 교육을 진행할 것을 명하였음
- 법에 규정된 어업자원 보호구역에서 쌍끌이 어업, 저인망어업 등의 조업을 하지 않을 것을 명하였으며 조업금지구역 내에 불법조업 행위 근절을 위해 조치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겠다고 언급
- 특히 3무 선박(선박등록증, 조업허가증, 선박검증서가 없는 선박)의 조업행위에 대해 엄격히 단속할 예정
- 농업농촌부와 관련부서는 공동으로 선박 자동식별장치(AIS)시스템을 연구개발할 예정이며 그에 대한 관리규정과 통일된 설비 기준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AIS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중국망(09.01)³⁾

3)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676602811677519151&wfr=spider&for=pc>

- 중국 후베이성 상양시 농업농촌부는 불법조업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만위안(한국돈 약170만원)의 포상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불법조업 신고포상금 시행방안’ 을 발표
- 방안의 주요 시범시행 지역은 베이허, 바이허 등의 상양시 부근 강
- 신고 범위는 그물망 혹은 트랩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 3무 선박(선박등록증, 조업허가증, 선박검증서가 없는 선박)의 조업행위, 불법적인 판매, 유통, 가공, 야생어종을 식용으로 먹는 경우, 기타 불법 조업 등이 포함됨
- 불법조업 신고 수리 절차는 각급 농업농촌부가 신고 정보를 수리하면 행위의 위법성에 따라 법에 의거해 직접 처리하거나 각 공안(중국의 경찰) 혹은 시장감독, 교통운송, 수리, 도시 법 집행위원회로 이관하여 관련 부문이 조사하여 처리하게 하는 절차
- 이번 불법조업 신고포상제도의 시범시행은 상양시 ‘10년 금어’ 정책, 창강유역 금어통지 정책의 정책적인 기반을 제공해 주기 위함
- 중국은 국내 창강의 어업자원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민들의 퇴직을 유도하거나 사업전환, 금어기설정 등의 정책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출처: 중국신문망(10.10)⁴⁾

4) <https://baijiahao.baidu.com/s?id=1680141842398761390&wfr=spider&for=pc>

- 최근 유럽 어업단체인 유럽어업인연합(Europeche)은 중국의 값싼 다랑어에 대해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공식 제기함
- 유럽어업인연합은 중국정부가 참치살과 참치통조림 생산보급업체에게 불법적인 재정 지원과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며 유럽의 어업경제 질서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언급
- 어업인연합은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중국산 참치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취소하라고 유럽연합에 강력하게 촉구
- 스페인은 2019년 3만t의 할당량중 20853t을 소비하였는데 그 중 71%가 중국산임
- 중국산 가공참치의 대량 수입으로 유럽 국가의 연안도시의 관련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자국 어민, 어업관련분야 종사자들에게 악영향을 줌
- 유럽어업인연합 회장 Javier Garat는 “참치시장의 전략적 중요성과 높은 경쟁력을 감안해 유럽 위원회가 중국산 참치에 대해 조속히 조치를 취하여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고 밝힘
- 이어 그는 “우리는 IUU 어업과 노동 남용국이 시장진입 혜택을 얻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며 유럽연합은 유럽과 제3국 생산보급자의 공평경쟁을 수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현재 참치상품에 실시하고 있는 관세할당금은 어족자원의 지속성을 도외시하는 외국 생산업자들에게 주는 상과 마찬가지로” 라고 언급

※출처: 중국국제어업박람회(10.13)⁵⁾

5) 출처:

<http://www.bbwfish.com/article.asp?artid=209937>

<http://news.foodmate.net/wap/index.php?itemid=573983>

□ 중국 대형 어선단의 오징어 조업

- 페루 해군은 이번주 페루 해안에서 230해리 떨어져 있는 부근에서 250여척의 선단을 발견하였음
- 해당 선단은 얼마 전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조업을 하던 선박들로 대형 오징어를 조업하는 선단임
- 이 일로 미국 주 페루 대사관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가 파견한 선대라고 언급하며 중국정부가 300여척이 넘는 어선으로 구성된 이 선단의 과도한 조업을 용인하고 있다” 고 밝힘
- 또 “해당선단은 일전에 GPS시스템을 끄고 선박의 이름을 바꾼 채로 조업을 하였다” 며 “이러한 조업은 페루에 큰 손실을 가져 올 것이며 생태 환경의 파괴를 가져올 것” 이라 언급
- 이에 대해 중국 주 페루대사관은 “중국은 해양 어업 관련기업에 관련된 국제법과 페루의 관련 법률규칙을 준수하라고 하였으며 선박의 공해조업을 제한하고 있다” 고 대응
- 페루 외교부는 이러한 국면을 완화하고자 미국 대사관의 트위터는 부정확한 내용이라고 언급하며 중국과 미국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출처: 환구망(09.27)⁶⁾

6) 출처:

<https://new.qq.com/rain/a/20200929A07GL6>

<https://baijiahao.baidu.com/s?id=1678939004507905931&wfr=spider&for=pc>

□ 활어수출관련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및 제도 지원

- 중국 광저우 라오핑현은 활어 수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조치를 제시함
- 라오핑현은 활어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책에 따라 지원책을 추진할 예정임
- 2021년 12월 31일까지 라오핑현의 활어 수출기업은 배 한 척당 (400t 이상의 선박) 1만 위안(한화 약 170만원)의 물류 보조금을 지급하며 동시에 다양한 형식의 은행-기업 연계지원책을 추진할 예정
- 활어 수출기업에 대해 금융적인 지원을 하여 기업융자, 신용담보대출, 자금난완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자 함
- 외자기업 대외무역 경영준비방안, 기업등록, 양식증, 해역이용증 수속, 생산품질향상 등의 지도업무를 통한 정책적인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이 외에도 활어수출기업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통관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수출 통로를 개척하고 통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활어 수출친환경 루트’ 를 구축할 예정

※출처: 수산양식망(10.10)⁷⁾

7) http://www.shuichan.cc/news_view-408973.html

□ 핑탄해양 인도양 어장에서 조업 시작

- 원양업계 대기업 핑탄해양은 인도양에 파견한 21척의 어선이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고 밝힘
- 해당 어선들은 2020년 7월 중국에 돌아와 재정비한 후 2020년 9월 15척의 후릿그물 어선과 6척의 오징어 어선을 공해 목적지로 파견하였고 10월초 조업장에 도착해 조업 시작
- 핑탄해양은 중국 푸젠성 핑탄현에서 핑탄 원양어업 유한공사로 시작 현재는 글로벌 어업 기업으로 성장
- 핑탄해양은 현재 미국 나스닥에 PME라는 이름으로 상장하였으며 주 조업지역은 인도네시아와 인도 연근해이고 주 어획 어종은 오징어, 갑오징어, 고등어, 굴비임
-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해당 기업이 조업생산하여 판매한 판매액은 인도양 오징어 1982만 달러(한화 약 226억 6000만원), 고등어 483.8만달러, 굴비401.5만달러, 갑오징어 309.6만달러

※출처: 허신주식(10.09)⁸⁾

8) 출처:

<http://www.chexun.com/2020-10-07/111947871.html>

http://enweb.eastmoney.com/pc_usf10/CompanyInfo/index?color=web&code=PME

□ 핑탄해양 조업 오징어 냉장운반

- 원양어업기업 핑탄해양은 대서양 어장에서 조업하는 15척 어선이 어획한 아르헨티나 오징어가 냉장되어 중국 푸젠성에 도착하였다고 밝힘
- 냉장운송선을 통해 운반된 이번 아르헨티나 오징어 어획량은 약 5100t이며 이는 약 2000만 달러(한화 약 228억원)에 상당하는 양임
- 회사 CEO 저우신룽은 “아르헨티나 오징어는 회사의 하반기 주력상품중 하나로 중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른 오징어보다 시장가격이 높아 회사의 2020년 하반기 영업이익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고 밝힘

※출처: 인민교통망(09.30)⁹⁾

9) 출처: <http://ny.stock.cnfol.com/yuancailiao/20200930/28438977.shtml>

□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최소화를 위한 수산물 판매기업 행정지원

- 상해 허청식품유한공사는 상하이 총밍섬의 연어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
- 베이징 신파디 시장 연어에서 검출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회사의 연어 판매량은 80%가량 감소하였고 수입원료의 바이러스 검출 위험도 증가하여 수입주기가 길어져 회사는 어려움에 처했음
- 회사는 전력으로 생산 복귀와 업무재개를 위해 노력하였고 상하이 세관, 총밍섬 세관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필요를 조사함
- 상하이 세관은 기업이 본토 외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국내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 구체적 조치 및 행정지원책

- 중국의 ‘인터넷+’ 정책을 활용하여 기업이 최대한 빨리 수출 가공식품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함
- 기업이 원료 관리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여 국산 원료양식장의 수출품질평가 및 원료 판매 업무를 제대로 실시할 것을 요구
- 2018년 8월 중국 수산유통 및 가공협회 등의 13개 기업은 공동으로 ‘식용연어’ 기준을 정하여 무지개 송어를 연어류로 포함시킴
- 이에 대해 총밍섬 세관은 기업에게 세관에 비치된 수출 수산물 양식장에서 생산한 원료로 수출안정 위험관리 계획에 따라 약품 및 중금속 잔류여부, 미생물 등 총 82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원료에서부터 시작하여 농수산물 산업라인 확보 품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상하이 허청(盒成)식품유한공사의 9.7t의 양식 연어가 상하이에서 출항하여 홍콩으로 이동
- 상하이 허청 식품유한공사의 부사장은 “관련 자료들을 제출한 후 당일 바로 홍콩이 요구하는 ‘위생증명서’ 를 얻을 수 있었다” 라고 언급
- 한편 8월까지 해당 기업은 연어류 총 19.8t을 수출하였으며 앞으로는 구미지역 시장을 개척할 계획



【그림1】 상하이 세관 공무원이 연어 수출제품을 검사하고 있다



【그림2】 직원이 연어를 가공하고 있다

※출처: 텅쉰망(09.30)¹⁰⁾

10) <https://new.qq.com/omn/20200930/20200930A0AOP300.html>

- 현지 냉동물류 라인이 회복되면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티엔원 유기농업유한공사 가두리 연어 양식장에서 조업이 시작됨
- 회사 관리자 리춘위는 “일부는 산둥지방과 상하이 두 지역 고객들에게 주로 판매되고 일부는 OEM방식으로 가공될 것” 이라고 밝힘
- 양식구역 내에는 회사가 연구개발한 스마트 사료보급 시스템과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산소와 수온, 물의 투명도에 따라 사료공급 시스템이 데이터를 반영하여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량으로 사료를 공급할 수 있음
- 가두리망 밑바닥의 오염물의 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연구 개발한 로봇에 수중 초음파 탐지시스템, 광학사진기를 탑재하여 가두리 양식 밑바닥의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음
- 연어 분변이나 사료찌꺼기는 슬러지 펌프를 사용하여 뽑아내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
- 창장시우 이사장은 “양식된 연어의 연간 생산가치는 대략 1.3억 위안으로 일부는 올해 하반기쯤 러시아로 수출할 예정” 이라 언급

※출처: 신장신원자이시엔망(10.05)¹¹⁾

11) 출처: <http://www.xjbs.com.cn/zphd/2020-10/05/cms2299332article.shtml>

- 중국 자연자원부 해양전략계획 및 경제부는 최근 ‘2019년 전국 해수 이용보고서’ 를 공개
- 2019년 연말까지 전국에 115개의 해수담수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사업 규모는 1573760t에 달하며 그 중 신규 해수 담수화사업은 17개, 규모는 399055t임
- 2019년 해수 담수화는 석유화석, 원자력 발전소, 철강 등 산업보급 등에 응용되어 성과를 거두었음
- 해수 직류 냉각, 해수 순환냉각응용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연간 해수를 이용한 냉각수는 1486.13억t에 달함

※출처: 중국자연자원보(10.16)¹²⁾

12) <http://www.nmdis.org.cn/c/2020-10-16/73052.shtml>